

4. 중단 및 사찰운영

혹시 우리는 방관자 아닌가?

100년 전의 <조선불교유신론>. 우리는 유신하였는가?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100년 전에 운위했던 그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렇다 하는 수긍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갈 길이 아직은 남은 까닭일 것이다. 이 장문의 논설에는 서론과 결론을 제하고도 15개 항목의 주장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다. 중단이나 사찰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사원의 주지(住職)의 선거법> <승려의 단결> <사원의 통합(統轄) 세 개의 장이 해당 부분이다.

필자의 눈에 이 부분은 단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 유신을 하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데,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특히 사원의 통합(統轄)이라는 문제에 이르러, 만해 스님은 “끝내 그 방책을 생각해 내지 못하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음이다.

자세히 읽다보면 만해 스님이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사원주지와 승려의 단결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 만해 스님의 현실인식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논지 혹은 구체적인 방책은 간단하다. 제발 ‘이런 주지(住職), 이런 승려는 되지 말자’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세 종류의 주지상을 예로 들었다. 첫째는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서 나이 차에, 법랍 차에, 거실(居室) 차례로 돌아가면서 소임을 맡는 형태인 윤회주직(輪回住職), 둘째는 뇌물과 위세를 빌어 주직을 차지하는 의뢰주직(依賴住職), 완력과 폭력으로 약육강식하는 무단주직(無斷住職)이 그것이다. 만해 스님은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로 주직을 뽑고, 월급을 정해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오늘의 현실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일리는 있다. 만해 스님은 선거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윤회주직, 의뢰주직, 무단주직이라는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보다 검증된 방법에 대한 선호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승가라는 수행공동체는 그 특성상 효율성만 따지는는 곤란하며, 경쟁과 부작용을 낳는 선거라는 방식은 승가공동체가 오히려 마지막에나 선택해볼만한 방식이 아닐까?

또 만해 스님은 제발 이런 승려는 되지 말자면서 양계초의 <방관자를 꾸짖는 글>을 인용해 여섯 종류의 방관자를 예로 들었다.

첫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배고프면 먹고 곤하면 자는 혼돈파(混沌派)이다. 둘째는 무사안일에 젖어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손해가 없으면 상관할 바 없다는 위아파(僞我派)이다. 셋째는 현실에 대해 탄식만 하는 오호파(嗚呼派)이다. 넷째는 모든 일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비웃고 흠뻑까지 하는 소매파



2007년 10월 19일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회·의뢰·무단주직 폐해 해소 위해 선거제 주장 혼돈·위아·오호·소매·포기·대시파 되지 말라 경책

(笑罵派)이다. 다섯째는 언제나 남에게만 기대고 자기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는 포기파(暴棄派)이다. 여섯째는 사실은 방관자이면서 방관자가 아닌 척 하는 대시파(待時派)이다. 이 부분은 조선불교의 유신이라는 당면 목적 하에서 만해 스님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닐까 한다. 너도나도 나서서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면, 오히려 <조선불교유신론>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조선조 500년의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삶 때문에 능동성을 잃어버린 승가는 그리고 승려들은 당시 방관자였을 뿐이었다. 만해 스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은 요즘 절집 안에서 흔히 듣는 그 말이 아니었을까? “주인공이 되어라!”

<조선불교유신론>,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앞을 볼 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은 너무도 당연해서 다시 할 필요도 없는 말이다. 만해 스님의 말대로, ‘일이 잘못된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 과거를 뒤우치고 미래를 경계함이 가장 옳을 것’이다.

과거를 뒤우치고 미래를 경계하는 자는 방관자가 아니다. 주체로서 참여하는 자이다. 주인공으로서 활동하는 자일 것이다. 다만 주인공도 제

대로 된 주인공이 있으니, 윤회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며, 의뢰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며, 무단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발표된 지 100년, <조선불교유신론>이 반드시 정론 정리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기대어 한국불교의 주인공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었나?

만해 스님에게 <조선불교유신론>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방관이 아니라 참여의 시작이었다.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려 한 치열한 몸부림의 서곡이었고, 그것은 세상의 ‘님’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가득 끌어안은 참여자였다. 종단의 운영이나 사찰의 운영이나 개인 일신의 운영이 역시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님들을 방관하지 않고, 님들을 가득 포용하는 주인공의 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석길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심우장을 가다

일제 항거 영양실조로 열반한 곳

만해 스님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 심우장(壽牛莊)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1번지에 위치해 있다. 심우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50여m의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야 한다. 소를 찾는 심정으로 맞닿은 곳은 흰색담에 검은색 장삼 대문, 대문 넘어 보이는 심우장은 뻥뻥이 들어선 주택들 가운데 유난히 단정하면서도 아무진 모습이다. 북쪽으로 세워진 심우장 내 마당에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입구에는 만해 스님이 손수 심었다는 향나무가 심우장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당시 심우장은 서울 성곽 바로 아래 위치한 성(城)밖 마을 북장골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한적한 동네였다. 이 터는 만해 스님을 따르던 안국동 선학원 벽산 적을 스님이 초당을 지으려고 마련해 둔 52평의 터에 조선 일보사 사장 방응모 등 만해 스님의 후학들이 힘을 모아 52평의 땅을 더해 지금의 심우장이 세워졌다.

심우장은 특이하게도 북향으로 세워졌다. 이 집을 지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벌이 잘 드는 남향으로 주춧돌을 놓았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그건 안되지, 남향이면 바로 조선총독부를 바라보게 될 테니, 차라리 좀 벌이 덜 들고 좀 덥더라도 북향으로하는 게 낫겠어”라며 주춧돌을 옮겨놓았다.

만해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웠던 경봉 스님은 자신의 일기에 “경성부 성북동 222번지에 초가집이 한 칸 있으니 한용운 화상이 수도하는 곳이다. 집 이름은 심우장이라 하고, 화상의 호를 묵부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된 심우장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만해 스님이 열반한 1944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항거하며 울분을 토하던 지사, 문인, 학자, 종교인, 청년들이 조국의 해방을 그리던 곳이었다.

심우장은 애국지사 일출 김동삼의 장례를 치르고 다

비를 한 곳이다. 스님은 변절한 동지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애국지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김동삼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세상을 뜨자 총독부의 눈이 무서워 어느 누구도 시신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소식을 접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시신을 업고 심우장으로 돌아왔다. 김동삼의 5일장을 치루고 화장해 한강에 유해를 뿌렸다. 해방 이후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김동삼의 죽음에 스님은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창씨개명 반대운동, 조선인 학생출정을 반대하면서 스님은 이곳에서 <유마경>을 번역하고, 신문 잡지 등에 왕성한 집필활동을 벌였다. 청년들의 각성을 강조했던 스님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전신인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애정을 쏟았다. 스님은

1933~1944년 거주... 직접 심은 향나무 남아 조선총독부 보기 싫다며 남향 아닌 북향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조금도 실망하지 말게. 우주의 법칙이 있네. 절대 진리는 순환함인데.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일세.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면 자연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일세”라며 격려했다.

학병 징병을 반대하고 일제의 배급을 거부하던 만해 스님은 영양실조로 심우장에서 열반했다. 만해 스님 입적 이후에는 외동딸인 한명숙씨가 1970년대 초까지 거주하며 관리하다가 심우장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 일본대사관까지 자리잡자 명륜동으로 이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 1981년 10월부터는 만해 사상연구회 김관오 회장이 관리를 맡았고, 1984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면서 성북구청이 소유 관리중이다. 현재는 성북구청 직원이 심우장 마당 한편의 건물에서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글 쓰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중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입적지까지 추석했던 심우장.서울시 기념물 제7호.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불교대전에 팔만대장경을 녹이다'의 사진설명 중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만해 유묵'을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된 만해 유묵' (관장 김종규, 서울 구기동)으로 수정합니다.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 불세존 말씀 -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탑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탑이 땅을 쪼고 솟구쳤다. 그날 자리를 참성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곧게 뻗어 하늘 끝까지 휘몰아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구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탑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름아닌 불교 최상의 경건인 묘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다보탑이었다.

점안된 다보탑이 있는 현지사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탑이 솟아난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에 존재하는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광명 만덕, 자재 만현 두 분 큰스님에 의해 점안을 거친 이 탑은 보정정도의 실제 다보탑과 도킹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과 천만의 분화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다.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분화보살님들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다보탑의 위신적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의 분화보살님께서 실제로 현신하여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운융창과 호국 불교의 차원을 넘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원력을 담고 있다.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한 복원이 될 것이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주제 : 관음태교법에 대하여 (Qook 550, BTV 521, U+108번) / 8월 22일~29일, 오전10시 오후 10시 방영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큰스님 저 164쪽 | 371면 | 25,000원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 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대작!
육도윤회계와 해탈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진리의 생사관을 제시한 21세기 인류사상의 금자탑!
부처님께서 어느 불교 경전 못지않게 평가하시는 위대한 시대적 성서!
발간 당시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기록
비타민 변호사(법학박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한 큰스님의 사후에 모든 의문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주우석 중앙일보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예상치 않았다. 코백인데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하 퍼진 것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광명만덕 큰스님, 자재만현 큰스님 공저 385면 | 25,000원 - 영어판·일어판 近刊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부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희유한 실재와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
불교사상 처음으로 인간 영혼체의 비밀을 밝히면서 영체윤회설을 최초로 선언하여 2000년 불교사의 무아윤회는쟁에 종지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록한 미증유의 보서이다. 아울러 보살·붓다가 되는 칭명법 수행법을 주장하여 ‘타락증심수행’이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영혼체윤회론》 불교사상연구소(2010년 신간) 158면 | 10,000원
2000여년간 왜곡된 무아설을 혁파하고 영체윤회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한역사적 논서!
불세존 말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윤회에 돌면서 고통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無我)를 이야기 했노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서 대적정삼매에 들어 무아(無我)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두 능멸하여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와 법은 영원히 멀도하지 않느니라.